

농어촌주민 체감형 복지를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방향



최 재 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사업계획부장
cjho8200@ekr.or.kr



강 신 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지역개발파트장
kanggad@ekr.or.kr

1. 서론

1.1 우리 농어촌의 현주소

우리 농업은 산업화, 세계화, 개방화의 조류 속에서도 정부의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농업생산량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투입재의 가격상승 및 수입증가에 따른 농산물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62.4%('13년 기준)인 34,524천원에 머물고 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의료, 문화, 교육환경 등 주거환경 분야는 도시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농어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점유율이 18% 추세이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6%, 인구 2천명 이하 면은 20.5%, 편의점 없는 읍·면소재지가 29%, 약국 없는 읍·면소재지가 50.6%로 매우 열악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최근 농어촌에 대한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요인은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들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 880호 → ('11) 10,503호 → ('13) 32,424호로 증가중인 귀농·귀촌인력이 '16년에는 약 5만 가구 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실제로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66%가 은퇴 후 농촌 이주 의사를 보였고, 이 가운데 14%가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표명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음을 미뤄 보건데 앞으로 귀농·귀촌 인구 급증세는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저출산, 고령화와 주민의 도시 이주로 비롯된 농어촌의 공동화를 개선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촌체험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농어촌에 대한 관심분야도 단순 식량생산 위주에서 휴양, 환경, 체험, 전원생활 등의 키워드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전국의 1,860여개 농어촌체험마을에 대한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2년 기준으로 946만명이 다녀갔으며, 특히 외국인도 2,300여명이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한류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위주의 농어촌정책추진에서 주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농외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2 지역개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포괄보조제도의 도입

과거 지자체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예산지원은 중앙부처에서 210여개 사업을 각각 지원하는 형태였으며, 유사·중복투자로 인한 효율성 저하,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수요보다는 공급자우선의 정책에 대한 문제가 상시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국가균형발전법의 개정으로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전국을 3+1지역으로 구분하여 3개 부처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210여개 지역개발 예정사업이 22개 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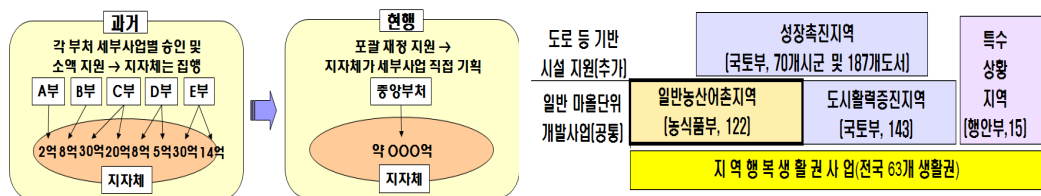
통폐합되고 되는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농어촌 시군은 일반농산어촌 지역으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광역시의 시·군·구 등 도시지역은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국토부, 군사접경지역 등의 시군은 특수상황지역으로 행안부가 관리토록 하였으며 산간오지나 도서 등 낙후지역은 성장축진지역으로 별도 구분하였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1 사업의 개요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으로 농어촌지역 117개 시군과 도농복합 5개시의 읍·면지역은 일반농산어촌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의 의견, 현지 자원, 관계 전문가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예비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검토반을 구성해 예산범위 내(년간 8천억 수준)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 지원하며, 국비70%, 지방비 30%로 2~5개년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다움의 유지·보



〈그림 1〉 포괄보조제도의 지원방식 및 생활권구분

전, 쾌적함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 보장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비해 한층 발전된 사업이며 몇 가지 특수성이 있다. 첫째, 사업내용을 H/W사업과 S/W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기존 사업들은 지자체 주도의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H/W사업 위주였으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화, 복지프로그램, 소득증대 프로그램을 우선하는 S/W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둘째,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특색 있는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였고 셋째, 사업추진 방식을 상향식 개발형태로 지역주민들이 사업대상지 선정단계에서 사후유지관리 단계까지 주도적·직접적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넷째, 삶의 질 향상 뿐아니라 6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관련학계, 민간단체, 관련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사업추진조직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고 있다

2.2 기능별 사업 내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존의 복잡한 형태를 체계화 하고 기능별로 통합해 기초생활 기반

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의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의 사회기반시설과 다목적회관, 건강관리실, 공연장 등의 문화·복지시설, 하천정비, 안전헬스 등의 재해대비사업으로 세분화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ICT연계 교통시스템, 이동식세탁소, 지능형 CCTV설치 등의 다양한 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농촌다움의 보존과 쾌적한 주거공간조성, 지속가능한 자연경관유지를 위한 지역경관개선사업은 가로경관정비, 전통시장 간판정비, 마을숲 정비, 담장 및 지붕정비 등의 사업이 해당되며, 간판, 담장정비 등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 시에는 총사업비의 20%를 주민 자부담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소득증대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소유의 시장정비, 농어촌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 지역자원 및 특산

〈표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능별 분류

기능별사업	사업내용(예시)
① 기초생활기반확충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의 인프라 구축 주거생활환경정비, 운동휴양시설 등
② 지역소득증대	농특산물 유통·가공시설, 생태학습장 등의 농산어촌체험시설, 농어업기반시설 등
③ 지역경관개선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 식재, 미용보호수 정비, 경관주택 등
④ 지역역량강화	주민교육·훈련, 홍보·마케팅, 귀농P/오피스,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비 및 S/W 사업 등



가. 다목적 회관



나. 마을안길정비



다. 건강관리실



라. 생태주차장

〈그림 2〉 기초생활기반확충 분야 주요사업



가. 생태공원조성

나. 간판정비

다. 가로경관정비

라. 보호수정비

〈그림 3〉 경관개선 분야 주요사업



가. 수확선별장

나. 농촌체험시설

다. 해상낚시 체험장

라. 딸기농사시설

〈그림 4〉 소득증대 분야 주요사업



주민역량강화교육

홍보마케팅

축제활성화

국내외선진지견학

〈그림 5〉 지역역량강화 분야 주요사업

물을 활용한 지역의 공동소득증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지역주민이 소득사업을 추진하려면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소득법인구성, 시설부지의 제공, 주민자부담 20%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 신청시에는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분석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등의 생산 보조적 지원 및 차량, 농기계, 전산 장비구입 등은 제외된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민,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교육훈련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소득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 준공 이후 지역주민의 자체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 시범운영 등이 총사업비의 10%내외로 반영되며, 사업추진을 위한 설

계, 각종인허가 비용도 여기에 해당 된다. 또한 국외선진지 견학의 경우 무분별한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추진위원장과 사무장을 제외한 참여주민은 30%를 자부담토록 하고 있다.

2.3 유형별 사업 구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의 성격에 따라 읍·면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개의 행정리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단위종합정비사업, 2개 이상의 행정리를 통합하여 개발하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마을사업으로 시행이 어려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군창의아이디어사업,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군역량사업으로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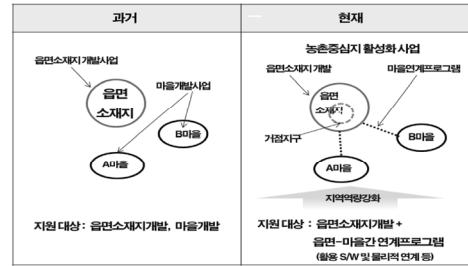
〈표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유형별 분류

구분		예산 한도	기존 사업	비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통합지구	120	중심지+장소마을		
	선도지구	80	읍면소재지(예산조정)	기저형 사업 원로	
	일반지구	60	읍면소재지(예산조정)		
장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 단위	종합개발	10	신규사업	
		공동문화, 복지	5	지역장외(예산조정)	
		경제(체험, 소득)	2-5	지역장외(예산조정)	단 소득사업은 2억
	권역 단위	환경(경관, 생태)	5	지역장외(예산조정)	
		신규마을(전원)	1.5-36	신규마을조성	세대당 3~4천만원
		종합개발	40	마을권역단위(예산조정)	
시군 역량	시군 단위	시 군 장외	10	지역장외어이더	
		시군 역량강화	0.5-1.5	시군단위 역량(0.5)	1년

형별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목표, 추진체계,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 사업내용 등이 다소 차이가 있다.

2.3.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도·농 복합도시와 군 지역의 읍·면소재지를 대상지로 하며 읍·면소재지 주민뿐만 아니라 읍·면소재지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배후마을 주민에게도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의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중심성 분석을 통해 중심성이 강한 1, 2계층지역은 농촌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지구로, 중심성이 다소 낮은 3계층 이하의 지역은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중심의 일반지구로 이원화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5년부터는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통합지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심지활성화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도입된 통합지구는 기존의 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제약이 있던 배후마을에 대한 H/W사업을 허용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연계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사업비도 배후마을 투자를 감안하여 12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기능별 사업 4분류



〈그림 6〉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개념도

〈표 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세부 분류

구분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 (통합지구)	비고
기본명칭	농촌 중심지역 교육, 의료, 문화, 복지, 경제 등 중심지기능을 확충 ① 중심지 기능 확충 ②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일반지구 +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마을에 서비스제공 ① 중심지 기능 확충 ②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선도지구 +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 통합 지원 ① 중심지 기능 확충 ②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③ 배후마을 대상 지원	
사업대상지	읍, 면(동계외)	행정시군 1~2개중의 행정시군 읍면 연구로 15.12.31 기준 읍면 정박사업 완료지역 선정가능	행정시군 3순위 이내	
지원 단/기 및 규모	60억원	80억원 18개소 내외	120억원 2개소 내외	
지원조건	국비 70%(지특화계)	국비 70%(지특화계)	국비 70%(지특화계)	

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나 일반지구는 기초생활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므로 지역소득증대사업은 반영할 수 없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 핵심 사업이며, 사업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현재는 중심지에 대한 기초생활기반 확충만이 아닌 배후마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모듈들이 개발되어 시행중에 있다.

2.3.2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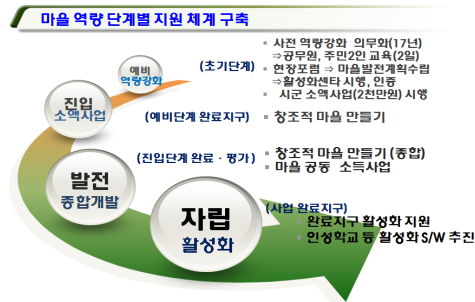
농어촌지역 마을의 주거환경개선, 생활환경기반구축, 문화·복지 시설확충, 경관보전, 주민공동 소득증대 등을 위해 마을단위로 시행하는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1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과 2개 이상의 마을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표 4〉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단계적추진 모듈

◆ 지역의 사업추진 역량을 고려하여 중심지 기능 확충 및 배후마을 연계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

모듈	M1	M2	M3
기능	중심지 기능 확충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	배후마을 연계개발
사례	복지문화 서비스 복합 타운 조성	배후마을 다문화가족 대상 복지프로그램 / 마을버스 노선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족 작은 공부방

M1: 중심지 기능 확충 지원(중심지 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M2: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M2-1: 배후마을을 고려한 중심지 프로그램(중심지에 문화복지 등 S/W 프로그램 운영)
M2-2: 중심지-마을연계 프로그램(배후마을 접근성 강화위한 교통, 경제적, 일자리 연계)
M3: 배후마을 대상 지원(중심지 서비스 수용 확대, 배후마을 소규모 시설)



〈그림 7〉 창조적마을만들기 단계별추진 체계도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의 역량에 기반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역량에 맞춰 예비(역량강화) → 진입(중규모사업) → 발전(종합개발) → 자립(활성화) 단계로 시행하는 지원 체계가 도입되어 있다. 발전단계의 마을단위종합, 권역단위종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입단계의 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분야 소액사업 추진 경험이 필수적 이이며, 사업신청 및 사업성검토시에는 소액사업 추진성과를 중점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신규 지구 지정을 하고 있다.

또한 진입단계의 소액사업은 마을발전 종합 계획 중에서 단위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형식이

므로 사업 신청 시에는 해당분야에만 한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3.3 시군역량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창의적인 S/W 중심의 사업으로 시군 전체에 대한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사업효과를 위해 도입된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과 주민과 지자체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역량강화를 위한 시군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구분된다.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은 사업시행지역의 공간, 기능별 분류에 제한 없이 지자체가 10억 원 범위 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기 추진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민, 지자체공무원 사전교육, 중간지원조직구성 및 준공지구 에 대한 사후관리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매년 2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성검토결과에 따라 50백만원~200백만원 차등 지원하고 있다.

2.4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특성사업 추진과는 달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패를 좌우하므로 주민스스로 사업을 경영할 주민자치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들은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주민추진위원회는 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모두 필요하며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해당 마을주민들로 구성하지만 중심지활성화사업의 경우 사업의 혜택이 읍·면 소재지 주민뿐 아니라 배후마을에도 지원가능토록 하기 위해 배후마을의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통상 마을별 3~5인 내외의 마을대표, 부녀회, 청년회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서 작성 시 자원 및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자체적인 역량강화 교육 시행, 기본계획수립 시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 및 회의 참석, 향후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사전협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추진위원회에는 50만원/월 범위 내에서 활동비가 지급된다.



〈그림 8〉 읍면발전협의회 전경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마을단위종합정비사업,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사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장은 주민과 시·군의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홍보, 기획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선발한다. 사무장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회의 운영 지원, 전문성 보완, 시설운영관리의 전반업무를 수행하며, 사업기간 내 120만원/월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별도로 지역 내 다양한 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주관으로 주민대표, 지역 내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발전협의회는 지역전문가와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지역 내 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되며, 장기비전 달성을 위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자문·지원을 수행한다.

2.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공적 추진사례

회화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경남 고성군)은 회화면복지회관 리모델링, 배둔시장 정비, 공동공원 및 주차장 정비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중 복지회관 리모델링의 경우 노후 되고 시설활용도가 낮아 방치되고 있는 면단위 복지관을 주민 건강관리실과 문화 강좌를 위한 공간으로 변화시켜 면소재지 주민뿐만 아니라 배후마을주민들도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설규모 및 S/W프로그



가. 회화면복지회관 시항전

나. 회화면복지회관 시항후

〈그림 9〉 회화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전경



가. 가시리 문화축제

나. 난타동아리

다. 기공동아리

라. 목공동아리

〈그림 10〉 가시리권역 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

램을 결정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가시리권역(제주 서귀포)은 가시리 문화센터, 창작지원센터, 조형물설치 등의 H/W사업을 시행하였으며, S/W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역사 전통을 찾아 ‘가시리 문화지도’를 발간하여 주민 자긍심 고취, 커뮤니티 형성을 시도하였다. 또한 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 중심의 마을축제인 ‘가시리문화축제’를 관광객이나 먹거리 위주가 아닌 주민들이 즐기는 축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권역사무실 여분의 공간을 활용하여 ‘디자인카페’를 운영하고 창작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예술인들을 유치해 가시리문화학교와 연계 운영하는 등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권역이다.

팔공산권역(충남 서산)은 지역에 농협 등 저온저장시설 및 유통시설이 없는 집에 착안해 80여 가구가 참여해 팔봉산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소득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권역뿐 아니라 면내의 마늘 양파, 생강 등 농산물까지 취급하고 있으며, 권역 내 주민에게는 이용료



〈그림 11〉 팔봉산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전경

20% 할인해줘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회룡포권역(경북 예천)은 사업 중간, 종합평가에서 모두 우수권역으로 선정된 권역으로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의 회룡포라는 우수한 자연 자원과 폐교를 활용하여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농촌체험의 사계절 프로그램도입, 진행방법의 차별화 및 농산물수확체험을 농산물판매와 연계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연간 9천여 명의 권역방문객 중 3천여 명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모평권역(전남 함평)은 고려시대 모평현 터였던 마을에 기존 고택과 어울리게 한옥으로 정비하기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전라남도의 행복마을조성사업을 병행 유치하여 마을경관을



가. 국가명승 회룡포 전경



나. 꽃 누르미 체험



다. 전통염색체험



라. 초롱불전통체험

〈그림 12〉 회룡포권역 자원 및 체험프로그램



〈그림 13〉 함평권역 전통 한옥경관 사례

형성하였으며, 민박 활성화로 주민소득증대 및 수입의 10%를 권역발전기금으로 조성해 권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통한옥마을로 조성되면서 도시자녀, 외지인들이 한옥의 산책유를 통하여 정착하는 효과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자치 규약을 통하여 신규주택 등은 한옥으로 계획하고 일반시설도 한옥과 어울리는 색채를 선택토록 하여 통일된 경관을 가꾸어 가고 있다.

참고문헌

1.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농림축산식품부, 2014).
2. 통계청(농림어업조사).
3. 지역개발사업추진방향(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2015.10).
4. 농어촌개발사업 유형별 모델(농림축산식품부, 2013).
5.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016).
6. 포괄보조제도하에서의 효율적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사업평가지표 연구(이주용, 김선주).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2013. 농림축산식품부).
8. 새 정부의 농어촌정책(최수명, 2014).